

<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삼위일체께 자기가 받았으니, 자기가 해야 될 감사는 자기가 해야 된다.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.
2. 어떤 것을 두고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지듯이,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해야 감사할 것이 생긴다.
3. 하나님은 줄 것을 주시고, 그 값을 감사로 받으신다.
4.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대가다. 받은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이다.
5.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기뻐하시니, 받은 자도 기뻐하는 응답을 해 드려야 된다.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, 감사의 생활도 하여라.
6. 하나님께 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첫째, 받았을 때 그 즉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둘째, 받고서 평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. 셋째,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보통으로 여기고 넘어갔기 때문이다.
7.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거나, 어떤 문제를 해결 받았을 때 그때 한두 번만 감사하다고 하고 끝내지 말고, 받은 것을 닳도록 쓰면서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.